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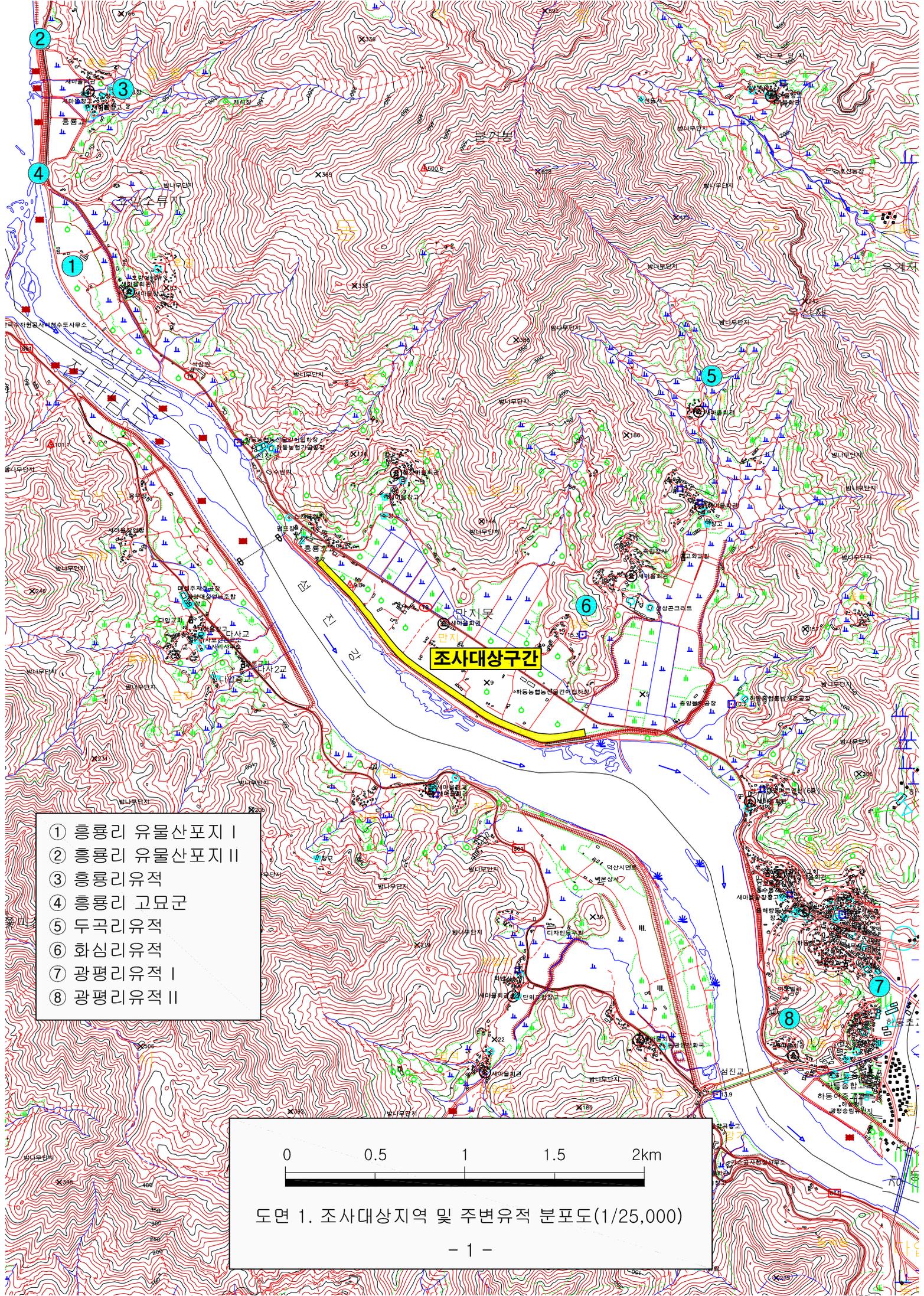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發掘(試掘)調査 現場説明會 第161輯

하동 국도 19호선 확장구간내 유적
發掘(試掘)調査 現場説明會

2009. 4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조사대상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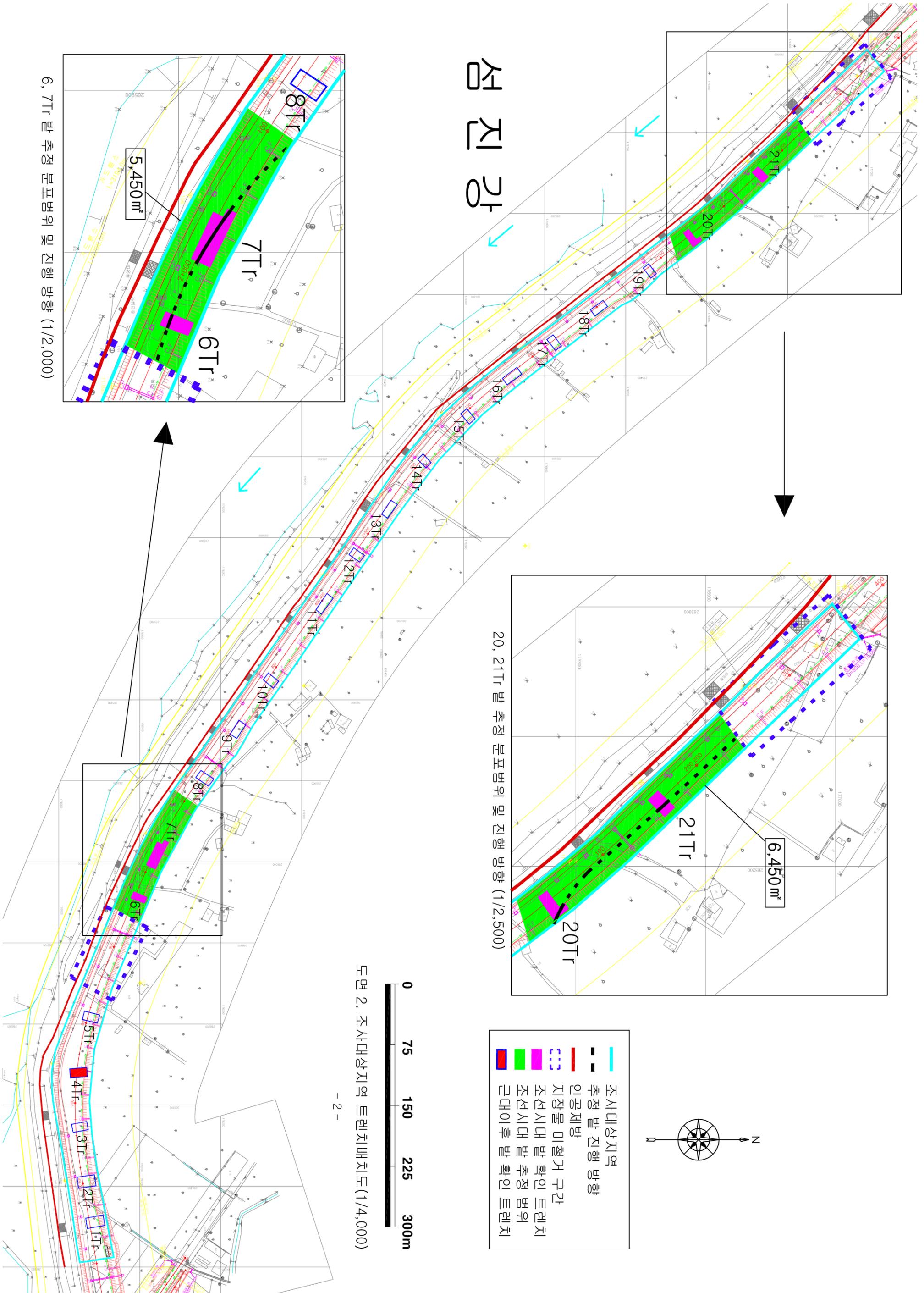
- ① 흥흥리 유물산포지 I
- ② 흥흥리 유물산포지 II
- ③ 흥흥리 유적
- ④ 흥흥리 고묘군
- ⑤ 두곡리 유적
- ⑥ 화심리 유적
- ⑦ 광평리 유적 I
- ⑧ 광평리 유적 II

0 0.5 1 1.5 2km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 -

성진강



20, 21Tr 발 추정 분포범위 및 진행 방향 (1/2,500)

5,450 m²

6,450 m²

- 조사대상지역
- - - 추정 발 진행 방향
- 인공제방
- - - 지장물 미철거 구간
- 조선시대 발 확인 트렌치
- 조선시대 발 추정 범위
- 근대이후 발 발 확인 트렌치

도면 2. 조사대상지역 트렌치배치도(1/4,000)

6, 7Tr 발 추정 분포범위 및 진행 방향 (1/2,000)

I. 조사개요

1. 조사명

하동 국도 19호선 확장구간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2. 조사대상지역 및 면적

조사대상지역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3-6번지 일원

조사대상면적 : 78,104m²

3. 조사기간

2009년 1월 22일 ~ 2009년 4월 6일(실조사일수 50일)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 구성

조 사 단 장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단장)

지 도 위 원 : 정정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재위원)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문화재전문위원)

책임조사원 : 최경규(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과장)

조사보조원 : 황은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조현철(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 조사의뢰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II.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3-6번지 일원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9호선(하동~평사리간)도로 확장공사 구간이다. 조사대상지역은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지표조사¹⁾ 결과, 하동읍 구간에서 유물산포지 3개소(화심리 유물산포지 흥룡리 유물산포지 I·II) 및 흥룡리 고묘군 1개소 등 총 4개소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토지와 과수 등의 보상이 완료된 화심리 유물산포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우리 연구원에 발굴(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화심리 유물산포지는 정동마을에서 신지마을에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하동읍에서 화개로 연결되는 2차선 국도의 서편에 위치한다. 또한 섬진강 동쪽의 자연제방내에 위치하며 사행성 하천의 발달로 인한 퇴적과 침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조사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 기와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전반적인 입지적 특징으로 보아 선사시대 취락과 생산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앞서 유적의 유존여부와 성격 및 분포범위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III. 조사대상지역의 자연환경 및 주변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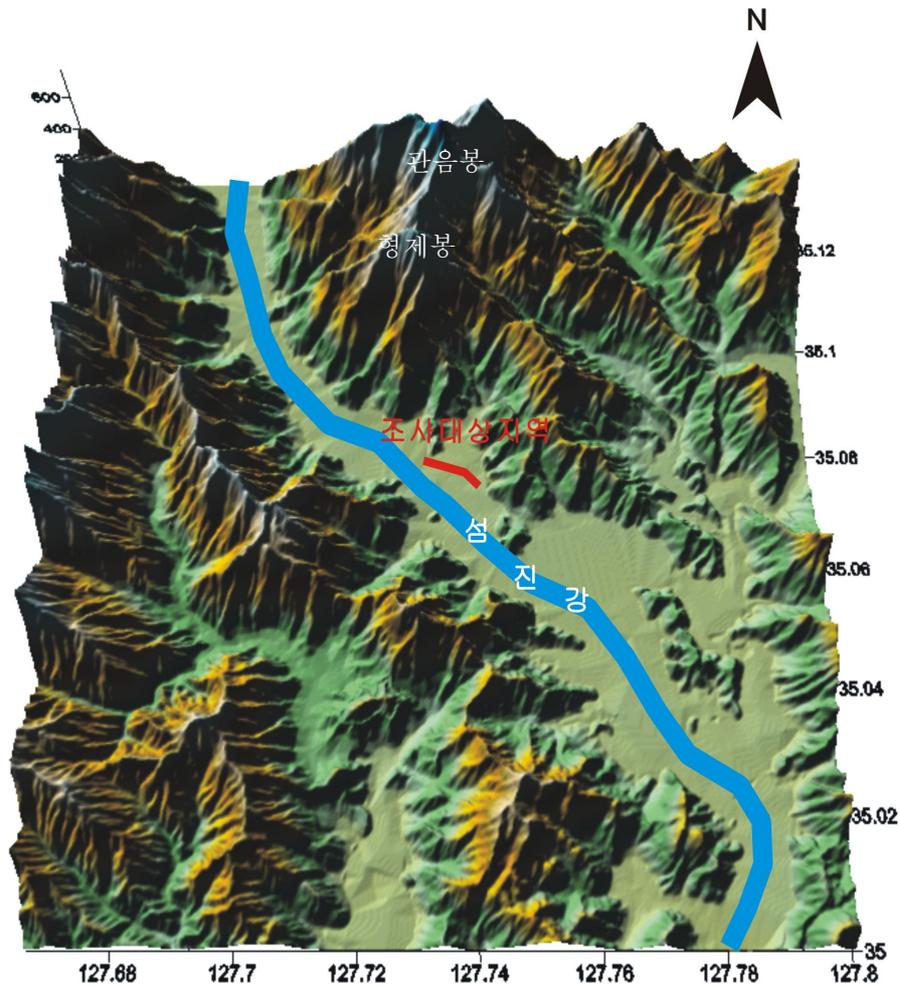
1. 자연환경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상남도 하동읍 일원은 소백산맥의 최고봉인 지리산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주능선인 노고단(1,506m)과 반야봉(1,728m) 등 1,500m 이상의 고봉들이 발달된 비교적 험준한 산지로 둘러 싸여 있다.

전북 진안의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조사대상지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다 광양만으로 유입된다. 섬진강의 수류는 완만하나 화개천 등 지류는 비교적 급류를 이루고 있으며 심한 하방침식작용을 보이기도 한다.

조사대상지역은 섬진강에 의해 이루어진 범람원으로서 자연제방내에 속하는데, 트렌치의 토층퇴적양상이 세립질 퇴적물(니질, 점토질)과 조립질 퇴적물(모래, 잔자갈)의 교차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지속적인 섬진강의 범람과정을 보여주며 섬진강의 범람 이후 유속이 줄어들어 유기물이 풍부한 니질 퇴적물들이 조사대상지역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 中央文化財研究院, 『國道19號線(河東~平沙里間)道路 擴·鋪裝工事區間 文化財 地表調査報告書』, 2001.



도면 3. 조사대상지역의 광역지형도

2. 주변유적

1) 흥룡리 유물산포지 I

하동읍 흥룡리 1061-4번지 일원의 호암마을 앞에 펼쳐진 하상퇴적지로서 현재 배나무 과수원과 논으로 경작되고 있다.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채집되어 화심리 유물산포지와 유사한 성격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유적의 입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퇴적이 일부 진행중이거나 단을 지며 평탄한 면을 형성하고 있다.

2) 흥룡리 유물산포지 II

하동읍 흥룡리 1734-2번지 일원으로 흥룡리 유물산포지 I 에서 약양면 쪽으로 약 1km 정도 이격된 구릉상에 위치한다.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시 경작으로 인해 계단식 절토가 이루어진 지표면에서 회청색 경질토기가 수습되었는데, 토기의 기벽은 얇은 편이며 표면에 자연유가 없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인근의 절토면에서 성격불명의 석축열이 확인되었다.

3) 흥룡리유적

하동읍 흥룡리 흥룡마을 1368번지 일원으로 서편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 북서편에는 분지봉의 말단부에 구릉이 위치하고 있다. 용강재 앞의 경작지와 과수원 등지에서 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토기편은 삼국시대 호편, 장경호편, 고배편 등이 주가 되며 자기편도 일부 수습되었다. 유적이 위치하는 곳은 섬진강과 인접한 낮은 구릉으로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4) 흥룡리 고묘군

하동읍 흥룡리 1174-3번지 일원으로 흥룡리 유물산포지 I 의 북편에 위치한 제실 뒤편 구릉에서 섬진강을 바라보는 사면에 위치한다. 2001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지표조사시 봉토가 높게 조영된 무덤 10여기가 확인되었는데, 귀부·비신·이수를 갖춘 비석도 잔존한다. 비석에는 '朝鮮治士鈞隱韓之墓', '保社功臣嘉善大夫行慶尙水軍節度司韓之碑石'이 각석되어 있어 조선시대에 조영된 분묘군으로 파악된다.

5) 화심리유적

화개방면 19번 도로의 우측 화심리 마을 입구변에 위치하며, 얇은 구릉 사면에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유적의 대부분이 과수원이나 밭으로 경작중이어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토기편과 자기편이 일부 수습되었다. 섬진강과 인접한 낮은 구릉일대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6) 두곡리유적

하동읍 두곡리 율동마을 산 128번지 일원의 북에서 남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사면에 위치한다. 현재 과수원으로 경작중이며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면에서 삼

국시대 호편, 고배편 등이 수습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없으나 지형 등의 입지 조건으로 보아 삼국시대 고분군이 입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7) 광평리유적 I

하동읍 광평리 광평마을 273-16번지 일원으로 하동초등학교 뒷산에서 반월형석도가 수습되었다고 『하동군지』에 전한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얇은 구릉상에 입지하며 지표조사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입지적으로 선사시대 취락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

8) 광평리유적 II

하동읍 광평리 동해량마을 325번지 일원으로 오룡정유지가 위치하는 마을의 얇은 구릉에 위치한다. 지표상에서 토기편과 자기편이 소량 수습되었으며 하동공원을 끼고 있는 구릉상의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선사시대 및 삼국시대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IV.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화심리 정동마을에서 신지마을에 이르는 구간으로 섬진강 동쪽의 자연제방 안쪽에 위치하며, 최근까지 배나무 과수원 및 채소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조사의 범위는 인공제방 안쪽 부분으로 길이 2km, 너비 20m 정도로 섬진강의 잦은 범람으로 모래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다.

조사는 지형적 여건에 따라 너비 5~13m, 길이 15~30m의 트렌치 21개소를 50m 간격으로 탄력적으로 설치하였는데, 섬진강의 사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지형변화양상 및 유구의 유존여부를 판단하고자 남-북 방향으로 15개소, 동-서 방향으로 6개소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전체적으로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트렌치 상부쪽의 너비를 넓게 설정한 후 벽면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트렌치의 깊이는 기본적으로 유구가 검출되거나 하상층이 나타나는 면까지 굴착하였으나, 모래층의 잦은 붕괴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지역 중앙부와 북서쪽 종점부분에 설치한 7·20트렌치의 경우 해발 3.7~5.7m 사이에서 경작층(밭)이 노출되어 유구의 정확한 성격 및 시기를 밝히고자 평면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도판 1. 조사대상지역 조사전 전경(남동-북서)

2.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은 섬진강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범람원으로서 현재 조사대상지역의 서쪽은 강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너비 약 20m의 인공제방이 설치된 상태이며, 근세지형도(1918년 제작)를 참고할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렌치 조사를 통한 조사대상지역의 전체적인 토층양상은 섬진강의 범람과 습지화등으로 인하여 모래와 실트, 점토가 교차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토층상에서 두꺼운 모래층과 함께 2~5cm 가량의 자갈들이 부분적으로 유입되어 있어 섬진강의 유로변경과 대규모 범람에 따라 유수의 영향을 상시적으로 받았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사대상지역 중앙부(6·7트렌치)와 북서쪽 종점부분(20·21트렌치)의 경우, 모래와 실트의 교차퇴적 사이에서 안정화된 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범람에 의한 사질토의 유입 사이에서 일정한 형태의 파상 굴곡면을 가진 경작층(밭)이 2~3개층 잔존하고 있어 평면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요 트렌치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도면 4. 근세지형도(1918년)에 나타난 조사대상지역

1) 1트렌치

길이 20m, 너비 13m, 깊이 5m의 규모로 섬진강의 유로방향과 직교되게 설치하였다. 토층조사 결과, 표토층-사질점토층-모래층의 3개층으로 구분되며 하층은 모래가 470cm 두께로 두껍게 퇴적된 후 모래와 사질점토가 반복퇴적양상을 보인다. 트렌치 내부에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판 2. 1트렌치 조사후 전경(북동-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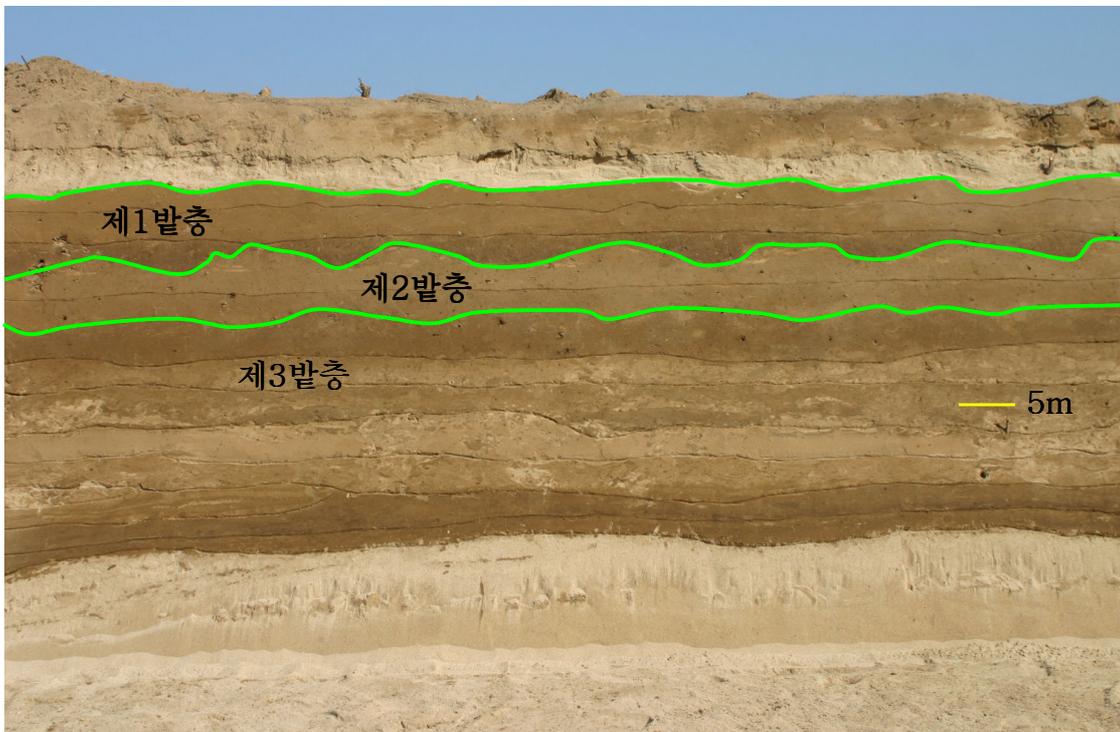


도판 3. 1트렌치 동벽 토층

2) 4트렌치



도판 4. 4트렌치 동벽 토층 전경(남서-북동)



도판 5. 4트렌치 동벽 토층 세부

길이 20m, 너비 10m, 깊이 4m의 규모로 섬진강의 유로방향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토층조사 결과, 총 6개층으로 구분되며 하층은 모래가 4m 두께로 두껍게 퇴적되어 있으며 상층은 모래와 사질점토가 교차 퇴적되어 있다. 이 중 해발 5.5~6.5m 정도에 형성된 사질점토층에서 총 3개의 발층이 검출되었으나 가장 아래쪽에 조성된 제3발층 직하의 모래층에서 근·현대에 제작된 용기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4트렌치에서 확인된 3개 발층의 경우 근대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발층의 경우 트렌치의 동벽과 서벽에서 두둑과 고랑이 확인되나 서로 간 너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발의 진행방향은 남동-북서향 혹은 북동-남서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3) 7트렌치



도판 6. 7트렌치 조사후 전경(북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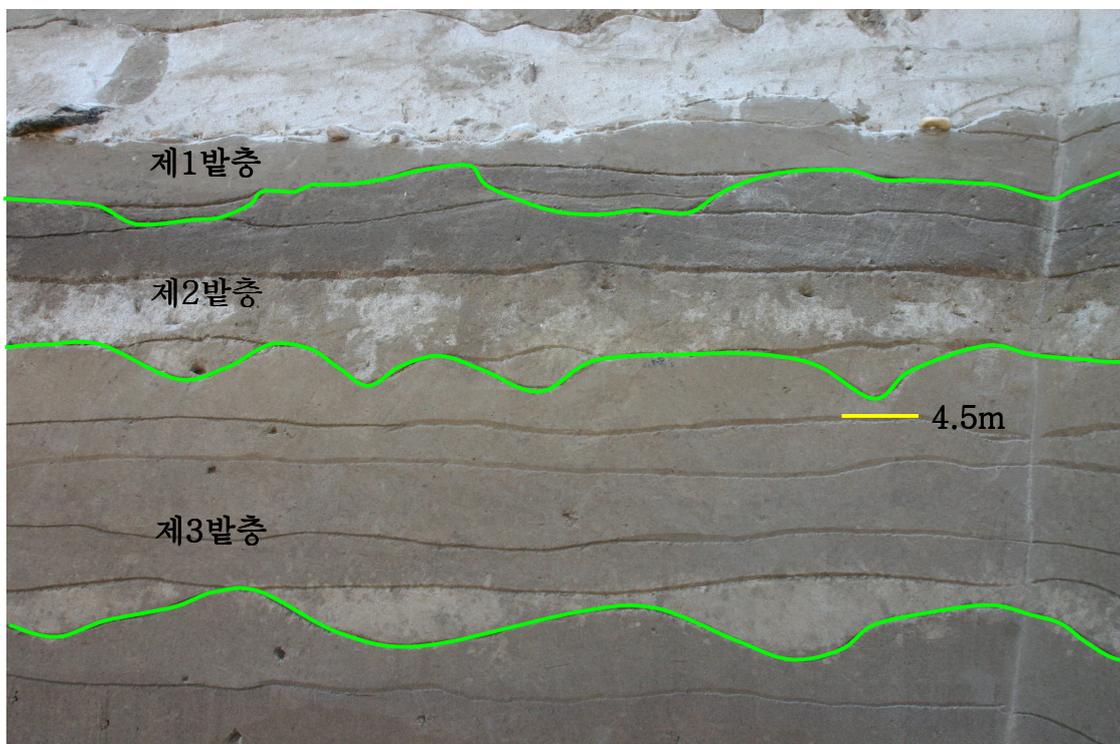
길이 30m, 너비 10m, 깊이 5m 규모로 섬진강의 유로방향과 평행하는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토층조사 결과, 총 11개층으로 구분되며 해발 4~5m에 형성된 사질점토층에서 총 3개의 발층이 확인되었다.

4트렌치의 토층과 비교검토한 결과, 제3발층 아래의 용기편이 포함된 모래층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발의 사용시기 및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7트렌치 서쪽 부분을 5×6m 정도 확장하여 최상면의 제1발층에 대한 평면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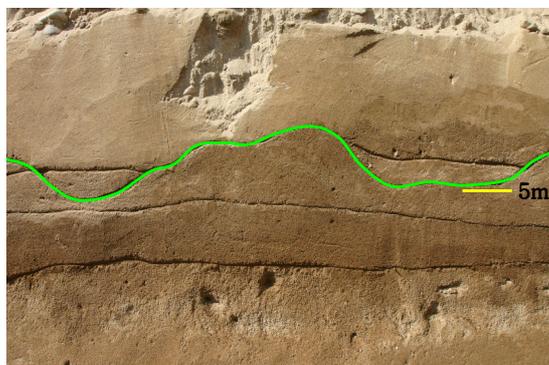
평면조사 결과, 제1발층은 흑갈색 사질점토를 母材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두둑의

너비는 35~49cm, 고랑의 너비는 20cm, 잔존깊이는 6cm 정도이다. 이랑의 형태는 대체로 직선형으로 단면형태는 波狀을 이루고 있으며 주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이다. 유물은 두둑에서 조선시대 도기편 1점이 출토되어 밭의 사용시기를 추정케 한다.

그리고 토층 단면에서 확인된 제2·3밭층의 경우 각각 명갈색 사질점토와 황갈색 사질점토를 모재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동벽과 서벽에서 두둑과 고랑이 확인되나 서로 간의 너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밭의 조성방향은 제1밭층과 같은 남동-북서향 또는 북동-남서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밭의 경우 토층조사시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으나 20트렌치에서 조사된 조선시대 밭층과 해발 높이가 거의 동일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동시기에 조성된 밭으로 추정된다.



도판 7. 7트렌치 남벽 토층



도판 8. 7트렌치 제1밭층 단면



도판 9. 7트렌치 제3밭층 단면



도판 10. 7트렌치 제1발층 조사후 전경(북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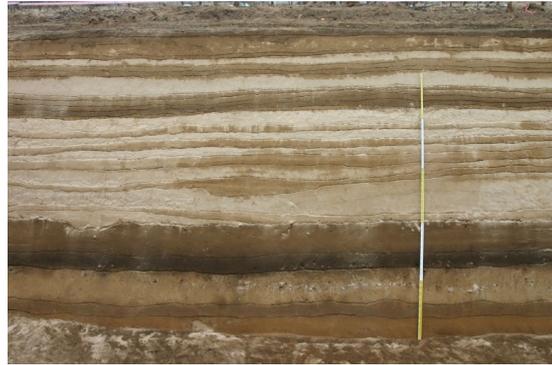
도판 11. 7트렌치 제1발층 두둑 출토 도기편

4) 11트렌치

길이 20m, 너비 10m, 깊이 6m의 규모로 섬진강의 유로방향과 평행하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토층조사 결과, 모래와 사질점토의 교차퇴적이 이루어진 다른 트렌치의 토층양상과 달리 모래층의 유입이 잦으며 부분적으로 직경 2~5cm 정도의 자갈이 잔존한다. 우기시 유속이 증가되면서 주기적인 섬진강의 범람에 의한 영향을 받았던 지역으로 판단되며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판 12. 11트렌치 조사후 전경(남동-북서)



도판 13. 11트렌치 북벽 토층

5) 20트렌치

길이 20m, 너비 10m, 깊이 4m의 규모로 섬진강의 유로방향과 직교하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설치하였다. 토층조사 결과, 해발 5.7m 하부로는 범람 이후 안정된 층을 모재로 이용한 경작층(밭 2개층)이 나타나나 해발 5.7m 상부로는 모래층의 유입이 잦으며, 층간의 너비가 좁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섬진강의 잦은 범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토층 단면에서 조사된 밭의 사용시기 및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자 20트렌치 서쪽 부분을 5×5m 범위로 확장하여 최상면의 제1밭층에 대한 평면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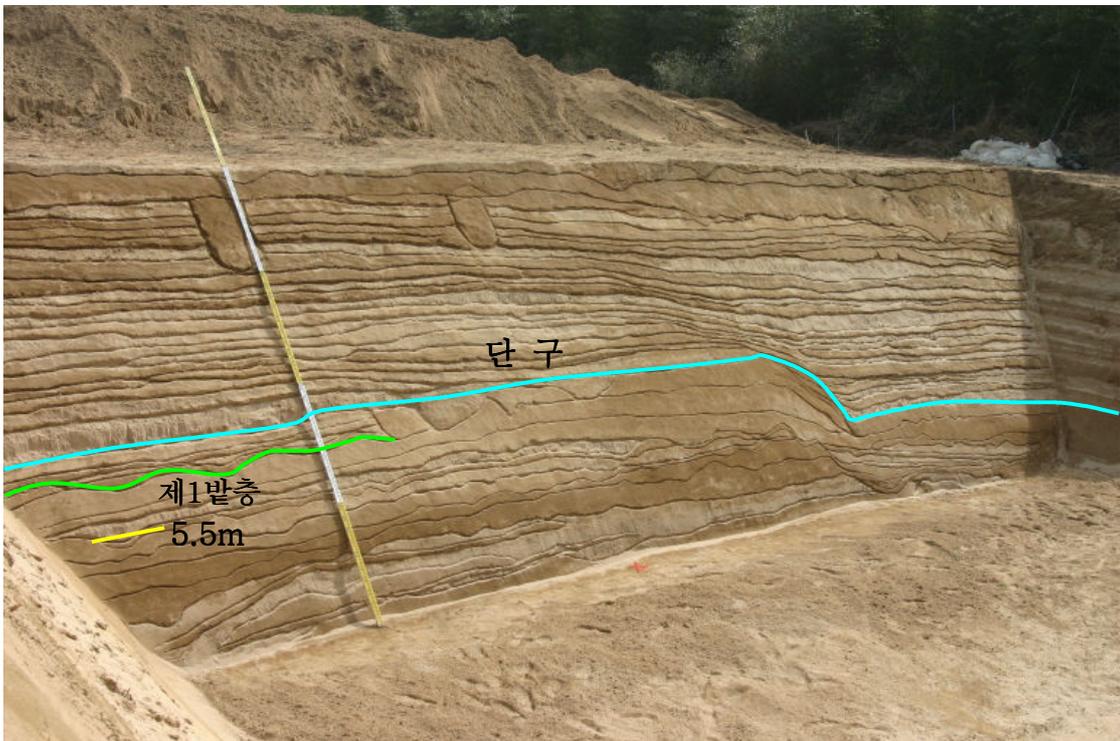
평면조사 결과, 제1밭층의 경우 모래층을 母材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두둑의 너비는 45cm, 고랑의 너비는 36cm, 잔존깊이는 6cm 정도이다. 이랑의 형태는 대체로 직선형이며 단면형태는 波狀을 이루고, 주축방향은 남동-북서향이다. 고랑 노출시 조선시대 백자편과 용기편이 출토되어 밭의 사용시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21트렌치에서도 토층상에서 제1밭층이 확인되며 조사구간 종점까지 동일한 양상으로 연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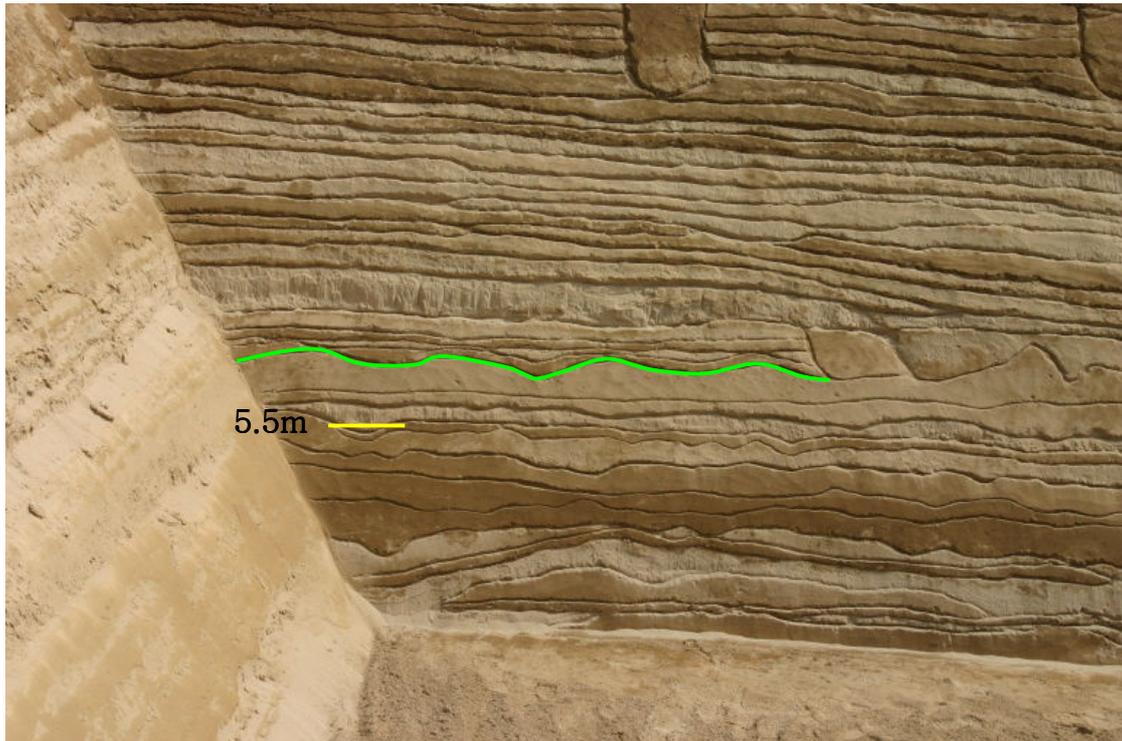
제2밭층은 해발 4.7m 상에 형성되었으며 범람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된 층을 이용하여 밭을 조성하였다. 이랑의 형태는 직선형, 단면형태는 梯狀을 띠며 토층상에서 확인되는 두둑의 너비는 약 150cm, 고랑의 너비는 약 60cm, 잔존 깊이는 30cm 정도이다. 제2밭층은 다른 트렌치에서 확인되는 밭의 고랑과 두둑의 너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작휴형태가 성휴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휴법은 파종 노력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중부지방에서 답리작 맥류를 재배한다. 두둑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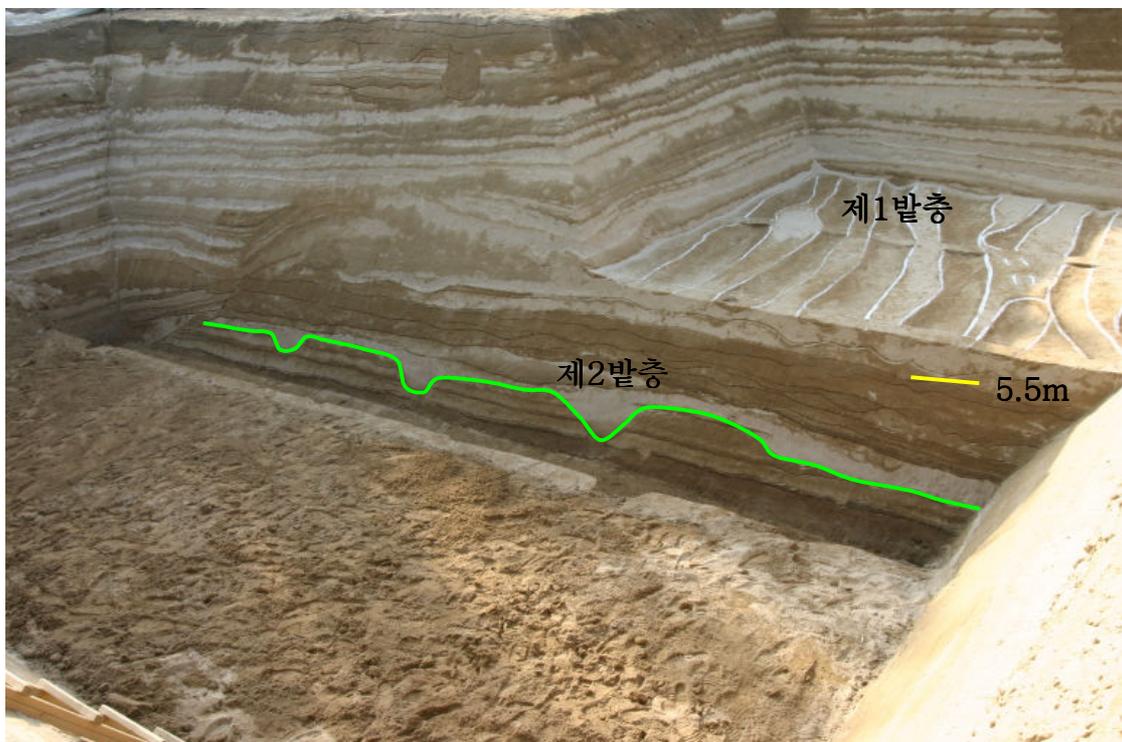
도판 14. 20트렌치 조사후 전경(남서-북동)



도판 15. 20트렌치 남벽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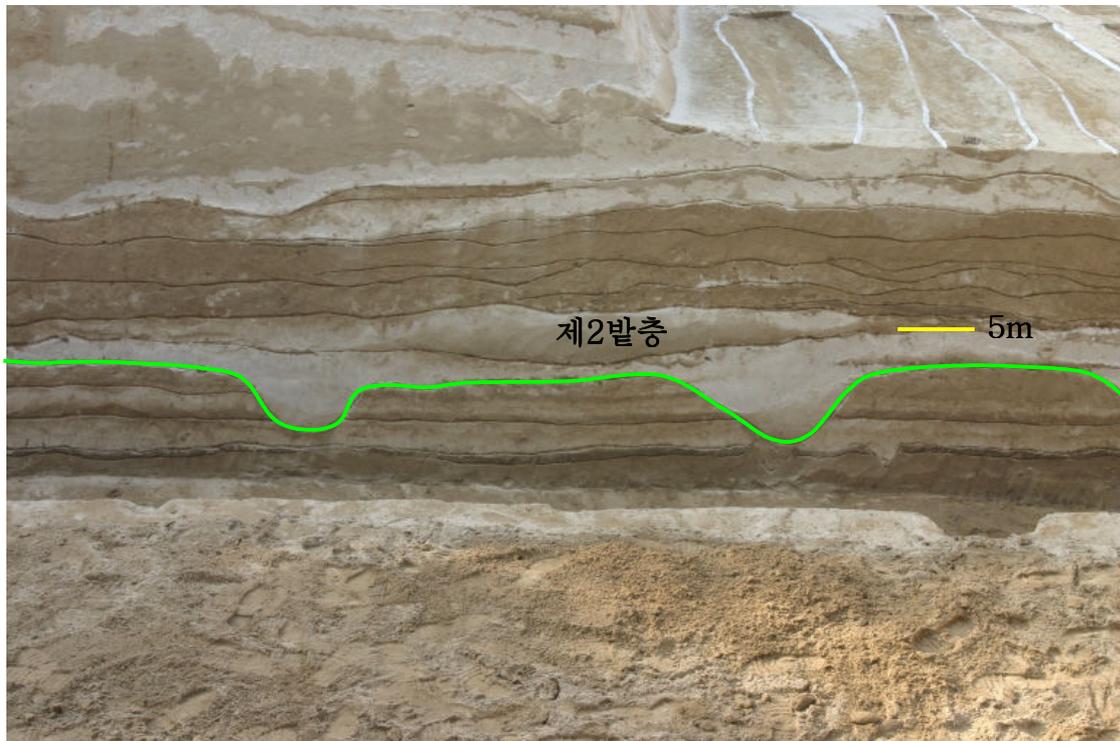
도판 16. 20트렌치 제1발층 단면



도판 17. 20트렌치 제1발층 노출상태 및 제2발층 단면



도판 18. 20트렌치 제1발층 평면조사후 전경(북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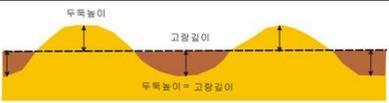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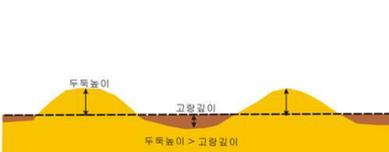


도판 19. 20트렌치 제2발층 단면

[표 1] 경작유구(밭) 확인 트렌치 일람표

트렌치	밭층수	조성 해발고도	단면 형태	출토유물	시대	비고	
4	3개층	5.5~6.5m	波狀	·	근대	제3밭층 하층에서 옹기편 출토	
6	1개층	5m	波狀	·	조선	7트렌치 제1밭층과 동일층	
7	3 개 층	①	5m	波狀	도기편 (두둑출토)	조선	평면 확장조사
		②	4.6m	波狀	·	조선	·
		③	4m	波狀	·	조선	·
20	2 개 층	①	5.7m	波狀	백자편, 옹기편 (고랑출토)	조선	평면 확장조사
		②	4.7m	梯狀	·	조선	·
21	1개층	5.7m	波狀	·	조선	20트렌치 제1밭층과 동일층	

[표 2] 경작체계에 따른 밭의 형태

구분	명칭	모식도	고랑과 두둑의 형태	재배작물 및 특징
I	평휴법 (平畦法)		두둑 高 = 고랑 高	채소·밭벼 재배 건조해와 습해가 동시에 완화
	성휴법 (盛畦法)		두둑을 보통보다 크고 넓게 만들	중부지방에서 답리작 맥류재배 건조해·장마철 습해를 막을 수 있음
III	A 휴립구파법 (畦立溝播法)		두둑 高 > 고랑 高 낮은 고랑에 파종	맥류 재배 한해와 동해를 방지할 목적
	B 휴립휴파법 (畦立畦播法)		두둑 高 > 고랑 高 두둑에 파종	조, 콩 재배 배수와 토양통기가 좋아짐

※ :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밭의 형태

V.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1. 조사대상지역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3-6번지 일원으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9호선(하동~평사리간)도로 확장공사 구간이다.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2001년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기와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전반적인 입지적 특징으로 보아 선사시대 취락 및 생산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추정되었다.

2. 지형적인 조건에 따라 길이 15~30m, 너비 5~13m, 깊이 3~5m의 트렌치를 총 21개소 설치하여 토층의 퇴적양상 및 유구의 유존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문화층에서 유구가 검출될 시에는 평면확장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정확한 성격 및 시기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3. 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토층퇴적은 모래와 실트, 점토가 교차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조사대상지역의 남쪽과 북쪽의 경우 두꺼운 모래층에 2~5cm 정도의 자갈이 부분적으로 혼입되어 있는 등 섬진강의 대규모 범람과 퇴적작용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조사대상지역 중앙부의 6·7트렌치와 북서쪽의 20·21트렌치에서 2~3개 층의 밭이 확인되었다. 정확한 사용시기 및 성격파악을 위해 부분적으로 평면확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발 4~5.7m 정도의 퇴적층에 조성된 밭은 출토유물 및 경작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4트렌치에서 조사된 밭 3개층은 전체적인 토층의 양상 및 출토유물 등을 참고할 때 근대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5. 금번 조사에서 검출된 조선시대의 밭은 부분적인 평면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적인 고고학적 정보는 확보하였다. 그러나 밭의 예상 분포범위에 대한 발굴조사 및 그 외 구간에 대한 공사시행 여부는 지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시대 밭 확인 트렌치	밭층 수	조선시대 밭 예상분포 면적
6·7트렌치	3개층	약 5,450㎡ × 3개층
20·21트렌치	2개층	약 6,450㎡ × 2개층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現場說明會 第161輯

하동 국도 19호선 확장구간내 유적

發掘 試掘 調査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9년 3월 31일

발 행 일 / 2009년 4월 1일

編輯·發行 / 財團
法人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3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
